연중 제18주일 강론(2019년 8월 4일)

김도윤 프란치스코 신부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 그 행적과 일생을 따라가보면, 예수님은 늘 깊은 사랑과 연민의 정으로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불행한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이 웬지 좀 까칠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네 목숨을 되찾아 갈 것이다. 그러면 네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오늘 1독서의 내용도 아주 썰렁하고 우리의 인생이 그다지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허무로다. 허무. 모든 것이 허무로다. 태양 아래에서 애쓰는 그 모든 노고와 노심으로, 인간에게 남는 것이 무엇인가? 그의 나날은 근심이요, 그의 일상은 걱정이며, 밤에도 그의 마음은 쉴 줄을 모르니, 이 또한 허무이다.” 인생의 실상을 아주 잘 표현한 대목입니다. 사는게 한마디로 ‘허무’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 지 모르고, 당장 내일 아침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처지로 매일 살아갑니다. 그러니 늘 걱정이 많고, 불안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 이면에 담겨 있는 진짜 핵심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은, 사실은 세상의 물질적인 것에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덧없는 인생에 대한 풍자입니다. 이렇게 허무한 인생인데, 만일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마저 없다면 그때야 말로 인생이 진짜 허무해 지는 겁니다. 부활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진짜 덧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의 재물과 관련하여 날카롭고 까칠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 있지 않다.”

사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물질 만능주의와 자본주의 문화가 세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벌들의 이야기에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엄청난 부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재산을 집계해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어떻게 그런 상상을 초월하는 부를 축척했을까요?

이 세상은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부자가 되려고 애씁니다. 부자가 되려고 열심히 일하고,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쉬지 않고 일합니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부자 농부도 무슨 죄를 짓거나 큰 잘못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지런히 열심히 일해서, 많은 수확을 거두었으니 잘 한 겁니다. 수확한 것을 저장할 창고가 부족해서 더 크게 지으려고 한 것도 잘못한 행동이 아닙니다.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 나쁜 일이 아니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사람보고 “어리석은 자”라고 했을까요?

그 부자 농부는 한가지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 많은 수확은 하느님께서 은총으로 베풀어 주신 것이었고, 또 그 은총은 단지 혼자서만 독차지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라고 베풀어 주신 하느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 농부는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합니다.

그 농부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더 큰 곳간을 만들어 거기에다 내 모든 곡식과 재물을 모아 두어야지. 그리고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야지.” “내가 수확한 것들, 내 모든 곡식들, 내 재물, 내 자신.” 오직 자기 자신 밖에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나만 생각합니다. 오직 모아둔 재산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쓰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나눔도 없고 사랑도 없는 그 인색한 마음을 꾸짖으시는 겁니다.

그 어리석은 부자는 결국 그 아까운 것들을 고스란히 남겨두고 떠나가야만 합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토록 애지중지했던 지상의 재물도 고스란히 남의 손으로 흘러가고, 천상에서는 빈털터리로 하느님 앞에 서게 되니 인생이 참 서글픈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애쓰는 그 많은 것들이 근심이요, 걱정이요, 허무”라고 1독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재산이나 부는 그 자체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 재물을 어떻게 무엇을 위해 쓰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재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재산을 늘려나가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생산 활동이고, 특히 생계나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아주 훌륭한 노동 활동입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나쁘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눔’입니다. 재산이 많건 적건, 자신이 가진 것을 이웃들과 나눌 줄 아는 사랑의 마음이 소중한 것입니다. 나눔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부유하고 풍요롭게 살아도 나중에 남는 것은 ‘허무’ 뿐입니다.

이 세상에는 단지 상위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세상의 재물과 자원을 독점하고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로 나누고 살아간다면, 굶어 죽는 사람들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을 거라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서로 나누는데 인색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데 아주 인색합니다. 나눔도 사랑도 자주 해 본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짧은 인생에 목숨을 걸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에 목숨을 걸고 사시겠습니까? 저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살겠습니다.

인생 마지막 날에 하느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그때 중요한 것은 ‘지상의 재물’이 아니라 ‘천상의 재물’입니다. 하느님께서 눈여겨보실 것은 지상에 남겨두고 온 재물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 때 주변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모아 둔 ‘천상의 재물’ 입니다. 결국에는 언젠가는 다 사라져버리고 말 허망한 것들에 온통 마음을 다 빼앗기고, 정말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시편 저자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 한 토막 밤과도 비슷하오니, 당신이 앗아가면, 그들은 한 바탕 꿈, 아침에 돋아나는 풀과 같이, 아침에 피었다가 푸르렀다가, 저녁에 시들어서 말라 버리나이다.” “인생은 기껏해야 칠십 년, 근력이 좋아서야 팔십 년, 그나마 거의가 고생과 슬픔이오니 덧없이 지나가고, 우리는 나는 듯 가 버리나이다.”

이 짧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좀 아름답게, 좀 지혜롭고 좀 현명하게 살아 갑시다!